<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신소재 개발 허풍선의 배후”

석유화학산업이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크게 고전하고 있고, IMF체제 이후 국내 전체 산업계 및 화학산업계의 R&D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학기업들이 느닷없이 신소재 및 Specialty를 개발했다는 보도자료를 줄줄이 배포, 화학산업 및 일반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Metallocene 촉매 개발경쟁이다. Metallocene 촉매는 기존 합성수지 촉매에 비해 물성 및 특성이 우수해 기존 PE 및 PP, Elastomer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 Specialty 제품으로, 미국 및 유럽의 유수 석유화학기업들이 앞다퉈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Metallocene 촉매 개발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선진 화학기업들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겨우 실용화했으나 가격이 비싸 수요가 예상만큼 확대되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제품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용촉매도 생산하지 못하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Metallocene 촉매를 개발했다고 떠드는 것을 보노라면 「배꼽이 하품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패할 확률이 큰 제품을 개발했다고 뒤늦게 떠들어대는 것도 그러하려니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폄하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현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꼬락서니도 우습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국내 화학산업계의 R&D 투자는 규모가 쥐꼬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연간 수억달러를 R&D에 투자하고 있는 선진 화학기업들도 개발하기 어려운 Metallocene 촉매를 개발했다고 발표하는 속내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매출규모는 크나 지명도가 떨어지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인식시키고, 신소재 개발에 따르는 부수입-주가상승을 유도해보겠다는 얄팍한 상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국민일반 및 주식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은 분명 사기행위이고, 또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몰지각과 부도덕의 소치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고가는 촌지속에 꽃피는 언경유착」을 부르짖는 사이비들이 판치는 한국언론들은 아무런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사실인 것처럼 신문 및 방송에 게재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재벌을 살찌우는데 여념이 없다. 「 라고 밝혔다」, 「 라고 발표했다」, 「 라고 주장했다」를 연발하면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세탁기를 개발했다는 정보를 이용해 증권투기를 자행하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투자를 유도한 뒤 부도를 내는 「한국적」 비도덕의 실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 R&D와는 거리가 너무도 먼 대림산업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나오지 않는 컵라면 용기 소재 및 강화플래스틱 열가소성 장섬유 복합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10억원을 투자해 열을 가해도 Styrene Dimer와 Trimer가 녹아 나오지 않는 PS수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도 그렇고, 연이어 불과 1주일 사이에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열가소성 장섬유 복합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도 전혀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1998년초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으로 분류하고 있는 Styrene Dimer 등이 컵라면 용기에서 일부 녹아 나왔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PS수지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금까지 종이나 다른 합성수지로 대체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각각 내구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컵라면 용기용 PS수지 국내시장은 1만5100톤, 320억원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1300억원에 달해 수출전망이 밝은 편이다.』는 과잉친절까지 곁들이면서…

여기에 『열가소성 장섬유 복합소재는 독일 BASF, 일본 Idemitsu, Chisso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BASF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한화종합화학이 생산 · 판매하고 있다.』고 우호도 과시하고 있다.

무엇인가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인식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 그지없을 뿐이다.

사기행위나 불법 내부자거래가 아닌,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정도경영이 아쉬운 상황이다.

<화학저널 1999/6/21>